

# 7월 「연근해 선박 기상정보」

발표일 : 2015년 6월 30일



최근 5년간(2010~2014년) 7월 상순과 중순에는 남해상과 제주도해상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으며, 서해·동해상은 파고가 낮았음. 하순에는 남해서부해상과 제주도 해상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음.

## 해양기상

- 최근 5년간(2010~2014년) 7월 상순과 중순에는 남해상과 제주도해상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으며, 서해·동해상에서는 파고가 낮았음. 하순은 남해서부해상과 제주도해상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으며, 서해·동해·남해동부해상에서 파고가 낮았음.

※ 해상 정보는 해역별 최근 5년(2010~2014년) 평균 유의파고의 순별 평균값

※ 물결이 낮음(1.0m 미만), 약간 높음(1.0~2.0m 미만), 높음(2.0~3.0m 미만), 매우 높음(3.0m 이상)

- 7월 2일 망 이후에, 서해의 인천에서 7월 5일에 935 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며 남해의 완도에서 7월 3일에 397 cm, 동해의 포항은 7월 4일에 51 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겠음.

## 해양안전

- 태풍 내습기 기상정보 확인, 사전 피항 및 피해예방을 위해 양륙
- 장마철 대비, 화재예방을 위한 선내 전기설비 수시 점검 필요
- 본격적인 피서철을 대비하여 선체 및 기관 등 점검, 안전 운항
- 해수욕장 인근에서 운항중인 수상오토바이 및 요트 등 사전 피항
- 안전 경각심이 무감각해지는 시기이므로 충분한 휴식 필요

## 어업기상

- 7월의 연안수온은 남해·서해·동해가 평년과 비슷한 수온분포를 보이겠음.  
- 예상 수온 : 동해: 17~23℃ , 남해 : 19~23℃, 서해 : 20~25℃

자료협조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국립수산물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최근 5년간('10~'14년) 7월 파고 관측값 통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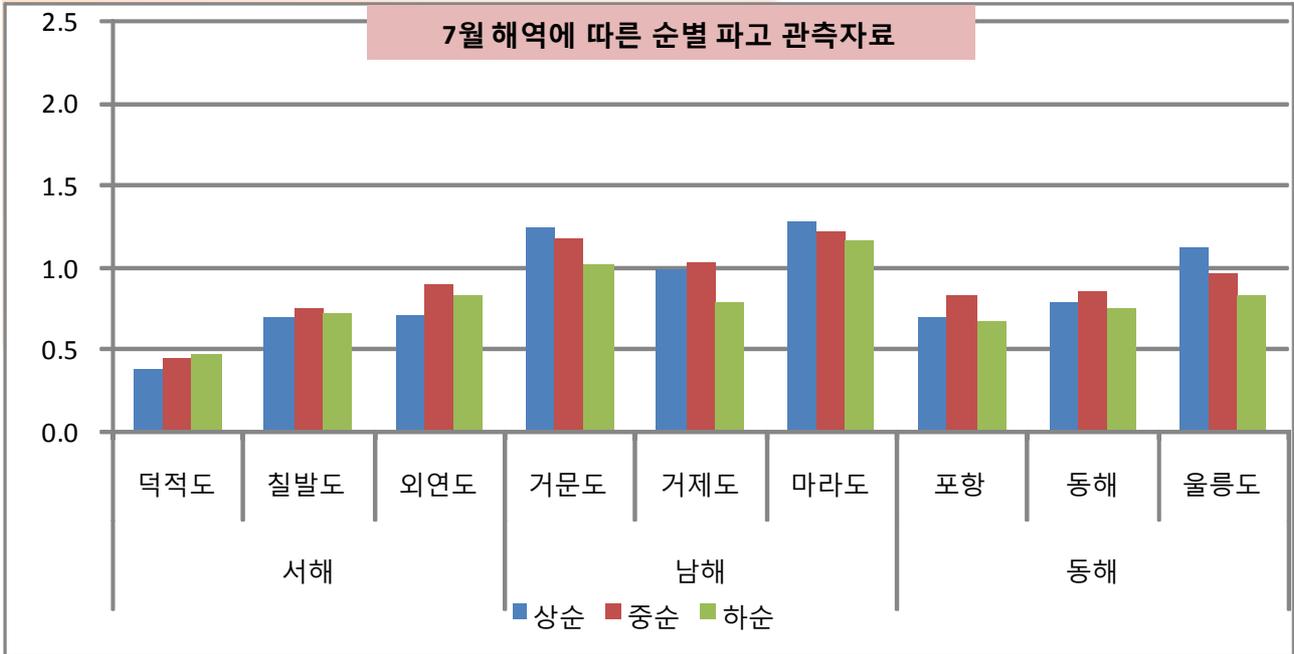


그림 1. 최근 5년간(2010 ~ 2014년) 7월 순별 파고 관측값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7월의 해역에 따른 해양기상부이의 파고관측 자료를 살펴보면, 남해상과 제주도해상은 파고가 약간 높았으며, 서해·동해상은 파고가 낮았음. 상순과 중순에는 남해상과 제주도해상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으며, 하순에는 남해서부해상과 제주도해상에서 파고가 약간 높았음. 7월에 파고가 가장 높았던 곳은 제주도(마라도)로 1.28m(상순)이었음.(그림1)

※ 울릉도 부이 자료는 2012년도 신설로 인하여 해당년도부터 추가함.

### ▶ 최근 5년 및 2014년 7월 풍랑특보일수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7월의 풍랑특보 발표 일수는 평균 1.1일로 전월(6월 평균 0.6일)에 비해 증가하였음. 순별로는 중순에 1.4일로 상순(0.9일)과 하순(0.8일)보다 많았음. 지난해(2014년) 7월의 풍랑특보일수는 상순에 평균 1.6일, 하순 1.6일로 최근 5년 평균 풍랑특보일수(1.1일)보다 많았으며, 중순은 없었음. 최근 5년간 7월에 풍랑특보일수가 가장 많았던 해역은 제주도남쪽면바다로 총 30일이었으며, 남해서부앞바다에서 5일로 가장 적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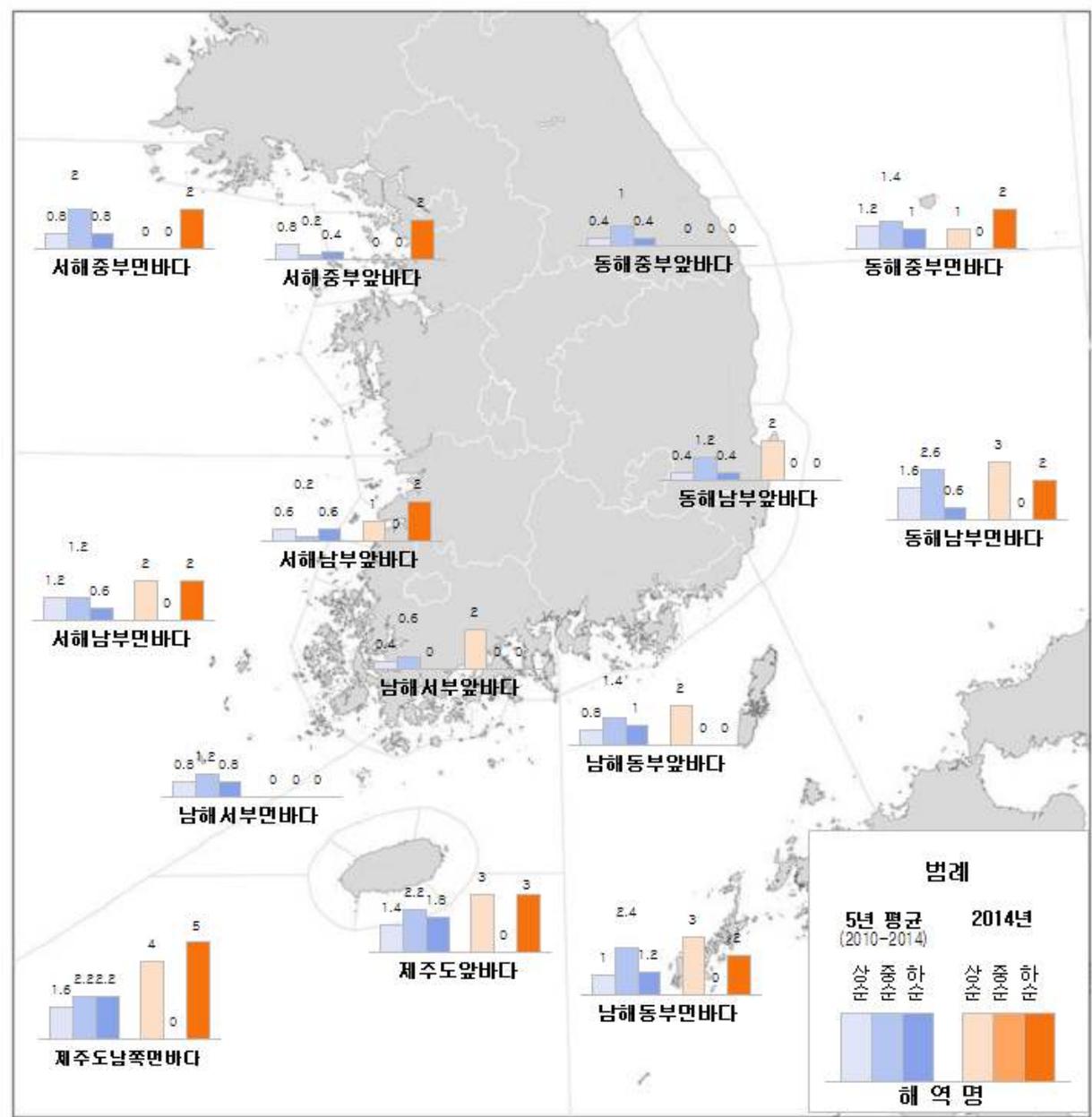


그림 2. 최근 5년(2010~2014년) 및 2014년 7월의 풍랑특보일수(상순, 중순, 하순)

▶ **지난해(2014년) 7월의 해황**

2014년 7월에는 서해상 및 동해상에서는 남서계열의 바람이, 남해상 및 제주해상에서는 동풍과 서풍계열의 바람이 주로 나타나 해역별로 주풍계가 다소 다양하게 나타났다. 풍속도 해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 해상에서 0.5~4.9m/s의 바람이 약 68.0%, 5.0~9.9m/s의 바람이 약 25.6%의 분포를 보였고, 10m/s 이상의 바람은 약 3.6%의 분포를 보였음.

앞바다에서 0.5~4.9m/s의 바람이 약 66.6%, 5.0~9.9m/s의 바람이 약 25.8%로, 10m/s이상의 바람이 4.5%로 나타남.

2014년 7월의 해역별 바람 상세 특성은 다음과 같다.

해역		주풍계	풍속 분포(%)			
광역	국지		0.5~4.9	5.0~9.9	10.0~13.9	14.0≤
서해중부	앞바다	남동~남서	75.5	18.9	1.6	0.9
	먼바다	남~남서	71.8	23.7	0.9	0.9
서해남부	앞바다	남동~남서	67.4	24.7	2.9	1.3
	먼바다	남	81.7	14.8	1.8	0.1
남해서부	앞바다	동, 남서	44.0	42.4	4.9	3.1
	먼바다	동, 서	72.3	21.9	2.4	0.0
제주도	앞바다	동, 서	73.4	19.4	2.8	2.8
	남쪽먼바다	남동	56.9	30.7	7.5	2.3
남해동부	앞바다	남동~남서	71.9	26.7	1.4	0.0
	먼바다	남서	57.1	37.5	1.5	0.0
동해남부	앞바다	남서	54.5	35.0	7.5	1.1
	먼바다	남서	59.4	35.4	2.1	0.0
동해중부	먼바다	남서	77.1	20.1	0.8	0.3
전해상			68.0	25.6	2.6	1.0

작년(2014년) 7월의 해역별 파고분포를 살펴보면, 전 해상은 2.0m미만의 파고가 약 95.4%로 낮은 파고의 비율이 높았음. 특히, 1.0m미만의 낮은 파고는 서해상이 97.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음. 2.0m이상의 파고는 제주도해상이 14.8%, 남해상이 6.5%를 보임. 5m이상의 파고는 제주도 해상에서만 2.3%로 나타났음

해역구분	파고분포(m)				
	<1.0m	1.0~1.9m	2.0~2.9m	3.0~4.9m	>=5.0m
서해상	86.1	10.9	2.4	0.6	0.0
남해상	61.6	31.8	3.9	1.7	0.9
제주도해상	59.2	26.0	10.5	2.0	2.3
동해상	80.0	18.7	1.0	0.4	0.0
전해상	75.6	19.9	3.2	0.9	0.5

▶ 여름에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 태풍

◆ 여름철 태풍 전망

- 올 여름철(6~8월) 북서태평양에서 예상되는 태풍 발생 수는 11~14개 정도이며, 평년(11.2개)과 비슷하거나 약간 많은 수준임. 이 중 2~3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평년 2.2개)
- 엘니뇨와 적도서풍 강화에 따라 태풍이 평년에 비해 남동쪽에서 발생하겠으며, 태풍의 활동기간이 길어지면서 평년보다 강한 태풍이 많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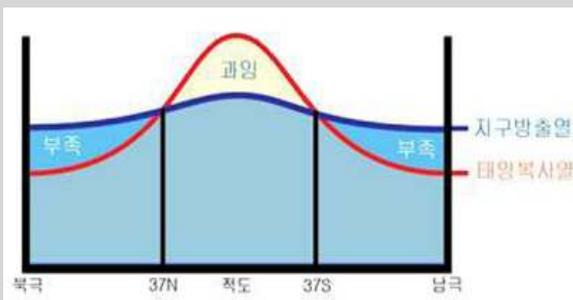
◆ 태풍이란?

태풍은 북태평양 서부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 중에서 중심부의 최대 풍속이 1초당 17m 이상인, 폭풍우를 동반하고 있는 기상현상을 말함.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은 6~10월 사이에 발생하며, 적도를 사이에 둔 남북 5°이내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음.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은 지구의 날씨를 변화시키는 주된 원인임. 지구가 자전 하면서 태양으로부터 받는 열량의 차이가 발생하며, 지역에 따른 열적 불균형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태풍이 발생하고, 비나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기온이 오르내리는 등 날씨의 변화가 생김. 적도 부근이 극지방보다 태양열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생기는 열적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 저위도 지방의 따뜻한 공기가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공급받으면서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며 고위도로 이동하는 기상 현상이 태풍임.

# 태풍은 지구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상현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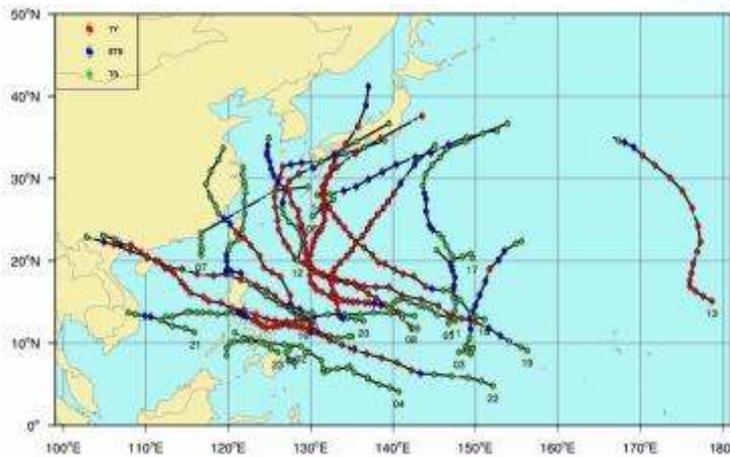
태풍은 열대지방의 넘치는 태양에너지를 북반구로 이동시켜 지구의 에너지 균형을 돕는다. 또한, 중요한 수자원의 공급원으로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해수를 뒤섞어 순환시킴으로써 플랑크톤을 용승 분해시켜 바다 생태계를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수(1904~2014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평균
횟수	-	-	-	-	2	22	103	124	80	9	-	-	340	3.1

과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발생 특징을 보면 1) 한 해에 3개 정도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며, 2) 8월, 7월, 9월 순으로 자주 내습, 3) 7월, 8월, 9월 석 달 동안에 내습한 태풍 수가 전체의 90%이며, 4) 아주 드물게 6월, 10월에도 내습하는 경우가 있음.



<2014년 태풍 이동 경로>

◇ 태풍의 분류

세계기상기구(WMO)는 열대저기압 중에서 중심 부근의 최대풍속의 세기에 따라 태풍(TY), 강한 열대폭풍(STS), 열대폭풍(TS), 열대저압부(TD)로 구분함.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도 태풍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지만, 일반적으로 최대풍속이 17 m/s 이상인 열대저기압 모두를 태풍이라고 함.

중심부근 최대풍속	세계기상기구	한국/일본
17m/s 미만(34knots미만)	열대저압부(TD : Tropical Depression)	
17m/s ~24m/s (34~47knots)	열대폭풍(TS : Tropical Storm)	태풍
25m/s ~32m/s (48~63knots)	강한 열대폭풍(STS : Severe Tropical Storm)	
33m/s 이상(64knots이상)	태풍(TY : Typhoon)	

우리나라는 태풍을 크기와 강도로 분류하는데 태풍의 크기는 풍속 15 m/s 이상이 미치는 영역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으로 분류하고, 태풍의 강도는 중심기압보다 태풍의 중심 최대풍속을 기준으로 약, 중, 강, 매우 강으로 분류함.

<태풍의 크기>  
※ 풍속 15m/s 이상의 영역

단 계	풍속 15m/s 이상의 영역
소 형	300km 미만
중 형	300km 이상 ~ 500km 미만
대 형	500km 이상 ~ 800km 미만
초대형	800km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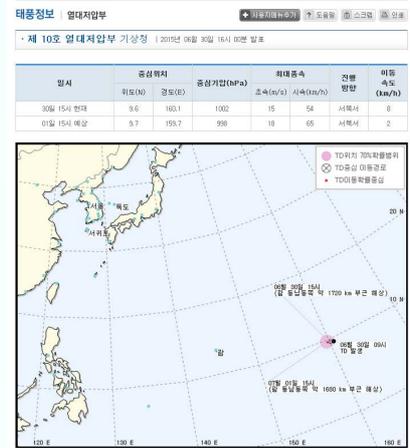
<태풍의 강도 : 중심 최대풍속 기준>

단 계	최대 풍속	
약	17m/s 이상~25m/s 미만	34knots 이상~48knots 미만
중	25m/s 이상~33m/s 미만	48knots 이상~64knots 미만
강	33m/s 이상~44m/s 미만	64knots 이상~85knots 미만
매우 강	44m/s 이상	85knots 이상

### ◆ 태풍정보와 열대저압부 정보

기상청은 태풍의 발생에서 소멸까지 '태풍정보'를 발표하고 있으며, 24시간 이내에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는 열대저압부에 대한 정보(사전 TD 정보)와 태풍 사후 단계에서 약화된 열대저압부에 대한 정보(사후 TD 정보)인 '열대저압부 정보'를 제공한다.

※ 이용방법: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날씨-태풍



<열대저압부 정보>

### 태풍 발생시 행동요령

#### □ 태풍주의보 발령시

- 조업중인 어선 및 항해중인 선박 신속 대피
- 선박출항의 엄격한 통제와 안전 결박
- 철거 가능한 어로시설 및 수산증식 시설 철거
- 기상예보 및 태풍상황 파악

#### □ 태풍경보 발령시

- 인근 항내 대피
- 대피선박은 고무타이어 등을 부착하고, 타선박과의 충돌로 피해가 없도록 로프 등으로 안전지대 결박
- 선박인양 안전조치 및 어망, 어구 등 안전지대 이동 조치

◆ 태풍과 폭풍해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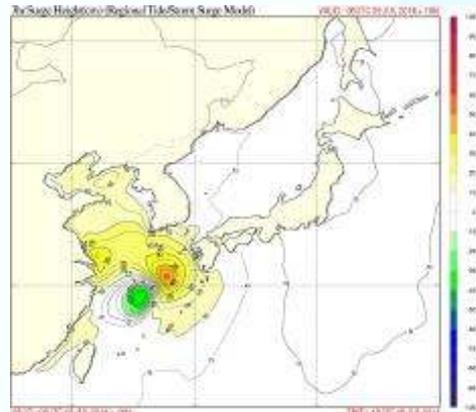
태풍 재해 중에서 해안지대 주민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폭풍해일임. 폭풍해일은 태풍이나 심한 폭풍, 또는 강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현저한 기압 강하와 폭풍(강풍)에 의해 해안에서 해수면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말함.

저기압이 접근하여 기압이 1hPa 낮아지면 해수면은 1cm 상승시키는 힘이 작용하고, 강한 저기압이나 태풍의 중심은 주변보다 수십 hPa 더 낮기 때문에 태풍의 중심에서 수십 cm 이상 부풀어 오른 해수면이 태풍의 이동경로를 따라 해안에 상륙할 때 해안 저지대를 덮쳐 막대한 피해 줌.

또한, 태풍의 해안 접근시각이 조석주기의 고조시와 일치하면 해수면의 상승효과를 더욱 증대(대조기 때 최대)시켜 해일에 의한 피해 발생이 더 커짐. 우리나라에서는 1959년 태풍 사라에 의해 큰 피해를 입은 기록이 있으며, 최근에는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가 동해안과 남해안 일대에 해일 및 폭우에 의한 큰 침수피해를 주었음.



<태풍과 폭풍해일>



<기상청 폭풍해일 수치모델 예측 일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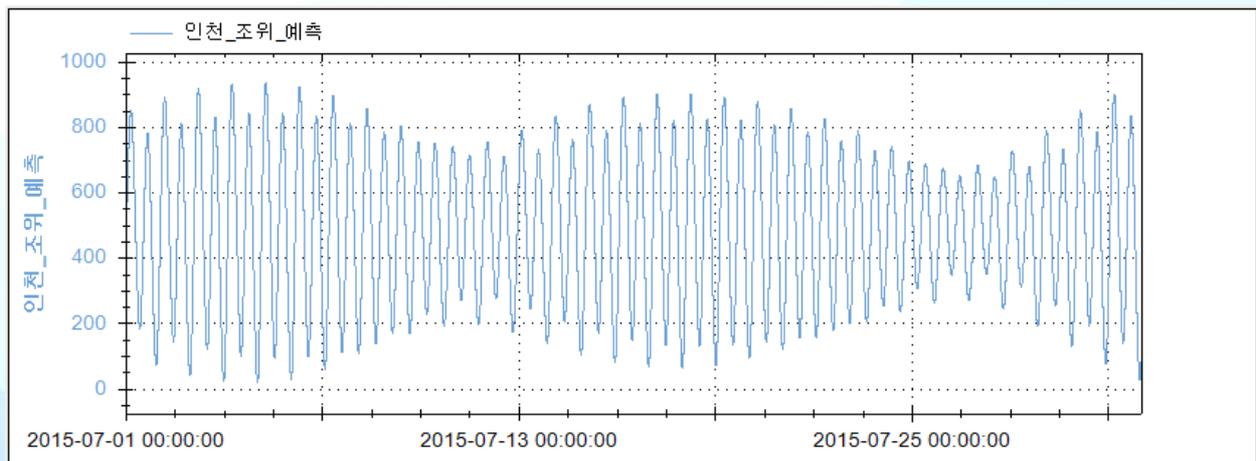
폭풍해일이 발생하면 해안 저지대는 침수 피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안 저지대 침수 피해예방을 위해 각별한 사전대비와 엄중한 경계가 필요하며, 해안가 근처에서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선박끼리 부딪쳐 부서지지 않게 고무 타이어 등을 충분히 부착하고, 소형 선박은 육지로 끌어올리고 어망, 어구 등은 미리 걷어 피해를 방지해야 함.

기상청은 지역 폭풍해일 예측모델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기준 시각에서 87시간 후까지 예측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관련 자료는 기상청 홈페이지-바다날씨 - 폭풍해일 모델(<http://www.kma.go.kr/mini/marine/stomsurge.jsp>)에서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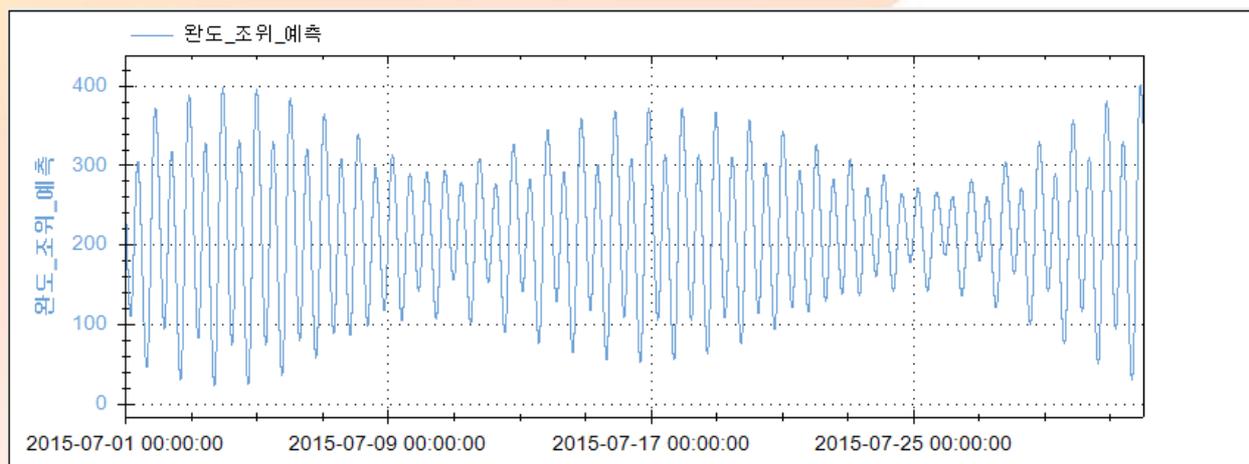
## ▶ 2015년 7월 조석 예보

7월 2일 망 이후에, 서해의 인천에서 7월 5일에 935 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며 남해의 완도에서 7월 3일에 397 cm, 동해의 포항은 7월 4일에 51 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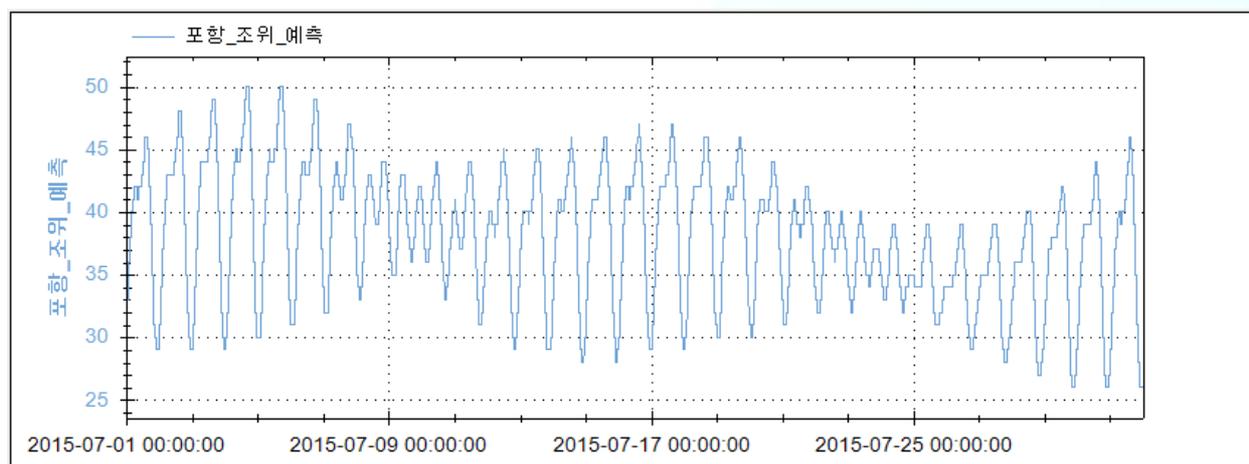
해역	관측소	대조기(망 7.2)		대조기(삭 7.16)	
		고극조위(cm)	발생시각	고극조위(cm)	발생시각
서해	인 천	935	07.05 06:58	901	07.17 05:40
	안 흥	705	07.05 05:59	673	07.17 04:44
	군 산	732	07.05 05:17	705	07.18 04:37
	목 포	499	07.05 04:32	483	07.17 03:10
남해	완 도	397	07.03 23:22	372	07.16 22:45
	마 산	206	07.03 22:08	198	07.16 21:24
	부 산	136	07.03 21:35	132	07.17 21:27
	제 주	296	07.04 00:01	278	07.16 23:29
동해	포 항	51	07.04 16:26	47	07.16 15:00
	울릉도	43	07.02 13:52	43	07.16 14:03
	속 초	46	07.02 14:34	46	07.16 14:45



< 2015년 7월 인천 조석예보 >



< 2015년 7월 완도 조석예보 >



< 2015년 7월 포항 조석예보 >

## 해난사고 현황 - 해양긴급신고 전화 122

### □ 해양사고 현황

- 최근 5년간 선박사고는 선박 통항량 및 해양 이용객 증가에 따라 7월 ~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

※ 7월 687건, 8월 767건, 9월 739건, 10월 717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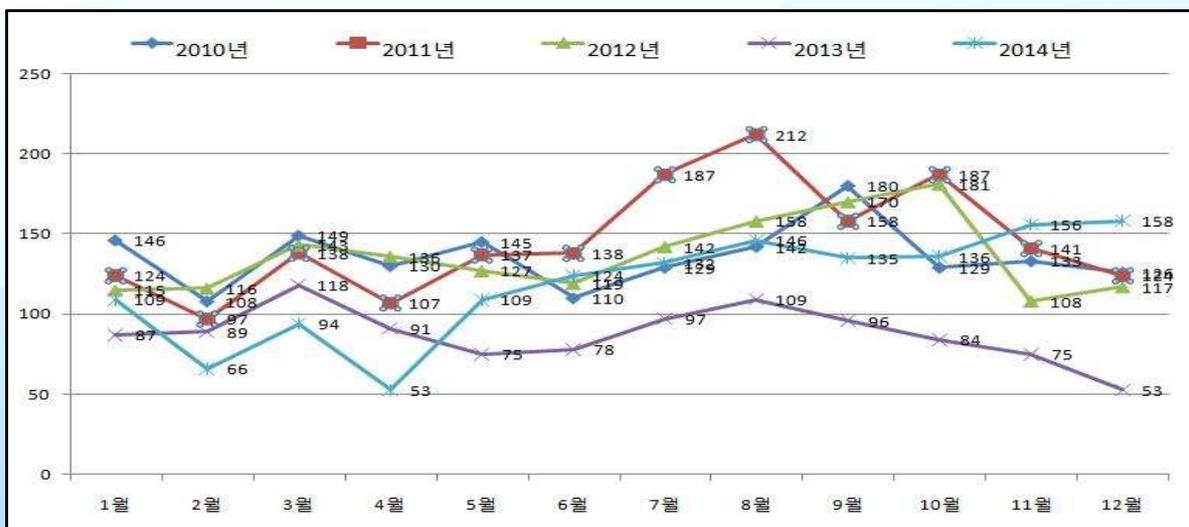
- 특히, 레저선박, 낚시어선, 여객선 사고 등 휴양객 관련 사고가 다른 시기에 비해 높음

### □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통계('10.1.1 ~ '14.12.31)

- 최근 5년 동안 선박사고는 총 7,479척(49,945명)이 발생하여 선박 7,185척(96.1%) 및 선원 49,070명(98.2%)이 구조되고, 선박 295척(3.9%) 및 선원 848명(1.8%)이 사망(631명) · 실종(244명)되는 인명피해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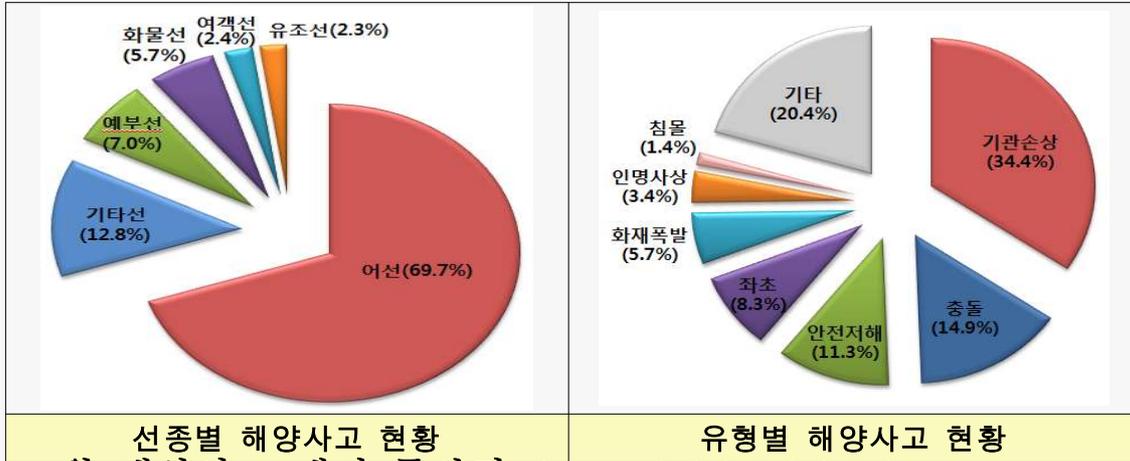
구분	발생		구조		구조불능		인명피해	
	척	명	척	명	척	명	사망	실종
계	7,479	49,945	7,185	49,070	295	848	631	244
2014년	1,418	11,180	1,351	10,695	68	458	396	89
2013년	1,052	7,963	1,015	7,896	37	67	48	19
2012년	1,632	11,302	1,570	11,217	62	85	64	21
2011년	1,750	9,503	1,680	9,418	70	85	38	47
2010년	1,627	9,997	1,569	9,844	58	153	85	68

### - 월별 선박사고 현황



최근 5년간 7월 중 사고발생 현황(제공: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최근 5년간 7월 해양사고는 총 697건(평균 139건) 발생



7월 해양사고 대비 주안점(제공: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 평소 접근·확인이 어려운 기관실 바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결함 발견시 즉시 수리·보수
- ◆ 항해 중 경계 철저, 상대 선박이 방위 변화없이 접근시 피항선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미리 대각도로 피항 조치
- ◆ 유지선도 충돌 우려 시 피항 협력 동작을 적극적으로 취해야 함
- ◆ 입·출항 전에는 계획 항로와 그 인근의 저수심대 위치 파악 철저

해양 안전정보 - 해양긴급신고 전화 122

- 해양사고 빈발 시기(687척, 연중 4번째 많음), 안전 항해 및 조업
  - 해양사고 687척중 어선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는 52.5%인 361척 발생
  - 여객선에서의 사고는 10척으로 연중 가장 많이 발생
- 기관고장, 충돌, 침수 등 해양사고 빈발
  - 유형별로는 기관고장(217척), 충돌(86척), 침수(60척) 등의 사고 발생
  - 정비 불량에 의한 기관고장 및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짙은 충돌, 침수 등의 해양사고 다수 발생
- 하계휴가 시작으로 선박 이용객 증가에 따른 해양사고 급증
  - 피서기에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요트 및 모터보트, 낚시어선 등 레저선박의 사고 증가

## 해양사고 방지대책 - 해양긴급신고 전화 122

- 태풍 내습기 기상정보 확인, 사전 피항 및 피해예방을 위해 양륙
  - 기상 악화시 외력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소형 어선, 예인선은 기상정보 확인 후 악천후 예상시 무리한 운항 자제
  - 태풍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 안전해역 피항, 소형어선은 안전하게 육상으로 이동 결박
- 장마철 대비, 화재예방을 위한 선내 전기설비 수시 점검 필요
  - 장기간 장마로 선내 전기절연 상태가 불량하여 화재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특히 FRP 어선은 조업 출어 전 선내 절연상태 점검 확인 필요
- 본격적인 피서철을 대비하여 선체 및 기관 등 점검, 안전 운항
  - 본격적인 피서철 시기로 많은 국민이 바다를 찾으므로 해양사고의 예방을 위해 사전 여객선의 선체 및 기관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운항규칙 준수
- 해수욕장 인근에서 운항중인 수상오토바이 및 요트 등 사전 피항
  - 바다를 처음으로 찾는 시민은 피항방법에 대해 익숙하지 않으므로 해수욕장 인근해역 항해 자제 및 수상오토바이·요트 등에 대해 사전 피항
- 안전 경각심이 무감각해지는 시기이므로 충분한 휴식 필요
  - 장마로 인한 호우와 잦은 안개, 고온다습하여 선원 집중력이 저하되어 안전에 무감각해지는 시기이므로 무리한 조업 및 항해 자제(충분한 휴식 필요)
  - 해양사고 발생시 가장 신속하게 구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국민안전처에서 운용중인 “바다 사건·사고 긴급전화 122”를 이용하여 신고하여 구조요청



## 수온 동향

### ★ 7월의 예상 수온

7월의 연안수온은 남해·서해·동해가 평년과 비슷한 수온분포를 보이겠음.

- 동해 : 17~23℃ 분포
- 남해 : 19~23℃ 분포
- 서해 : 20~25℃ 분포

### ▶ 지난달 수온 분포

6월의 연안수온은 월평균 15.8~23.1℃ 범위로 분포하였음. 동해연안은 15.8~18.2℃, 남해 연안은 17.5~20.2℃, 서해연안은 18.7~23.1℃의 분포를 보였음.

인공위성 자료로 분석된 한반도 주변 해역의 6월 표층 수온분포는 동해·서해·남해 근해역에서 각각 18~20℃, 15~21℃, 17~21℃로 평년보다 1~3℃ 낮은 수온 분포를 나타냈음.



## 어장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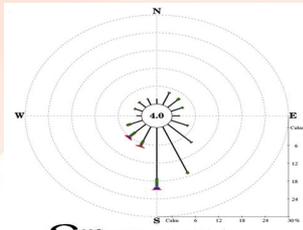
### ★ 7월의 어장 분포

7월에 들면 대형선망어업은 난류세력의 확장으로 수온 전선대가 남해안 연안 쪽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어, 제주도 남부해역에서 대마도 동북부해역까지 고등어, 전갱이, 눈통멸 등을 대상으로 넓은 어장이 형성되겠으며, 내유자원량의 증가로 평년비 순조로운 어황이 예상. 근해안강망어업은 연안냉수와 황해난류 사이에 형성되는 수온전선대를 따라 서해중부해역에서 제주도 주변해역에 걸쳐 아귀류, 병어, 반지 등을 대상으로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며, 전체적인 어황은 어군 밀도의 지속적인 증가로 평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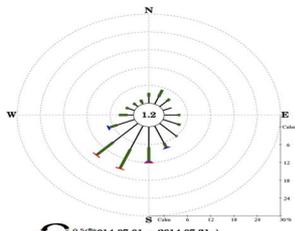


【참고자료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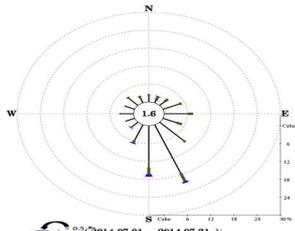
7월의 해상풍(해양기상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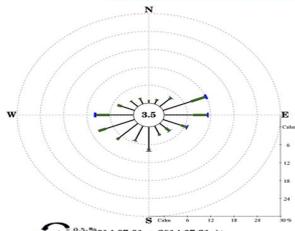
덕적도(서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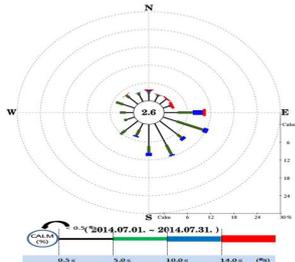
외연도(서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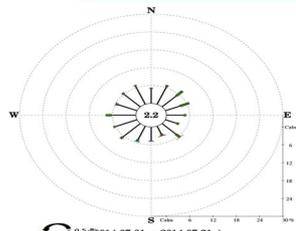
칠발도(서해남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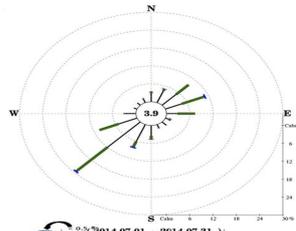
거문도(남해서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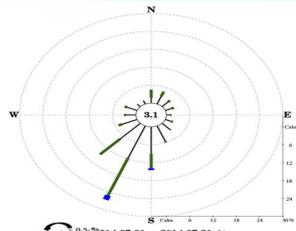
마라도(제주도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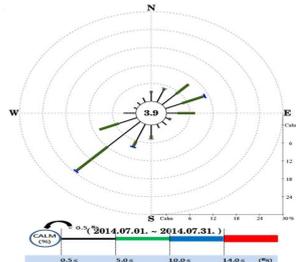
울릉도(동해중부면바다)



동해(동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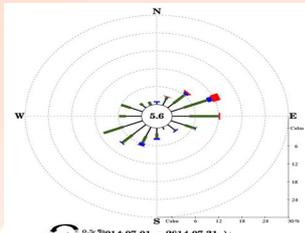
포항(동해남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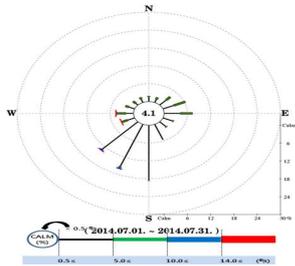
거제도(남해동부면바다)

그림 4.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14년 7월, 바람장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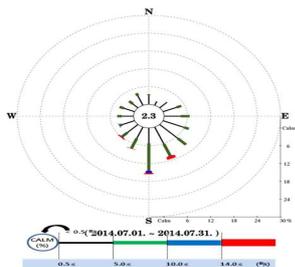
## 7월의 해상풍(등표기상관측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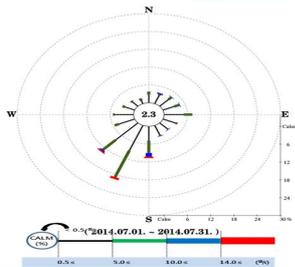
서수도(서해중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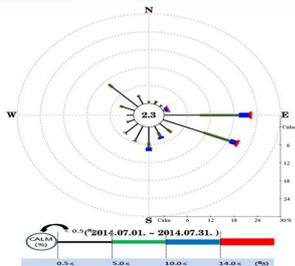
가대암(서해중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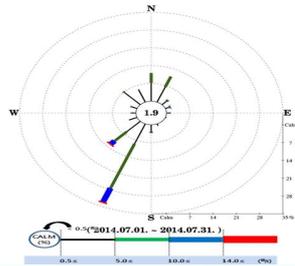
십이동파(서해남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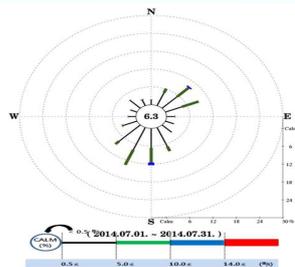
갈매여(서해남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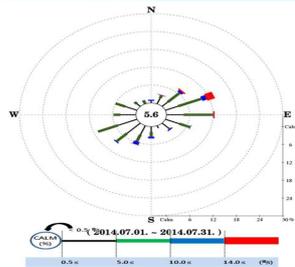
해수서(서해남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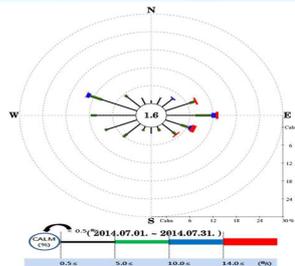
이덕서(동해남부앞바다)



광안(남해동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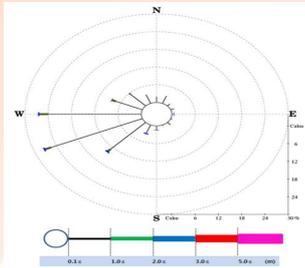
간여암(남해서부앞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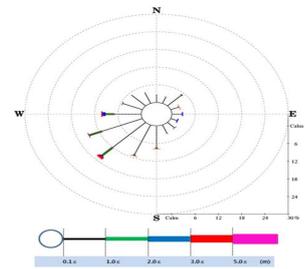
지귀도(제주도 앞바다)

그림 5. 등표기상관측장비 관측 해상풍('14년 7월, 바람장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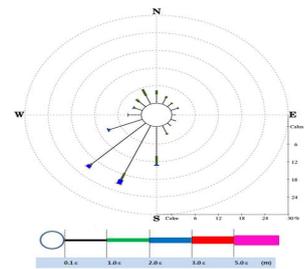
## 7월의 파향(해양기상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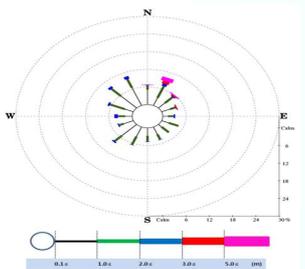
덕적도(서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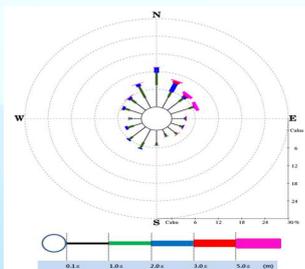
외연도(서해중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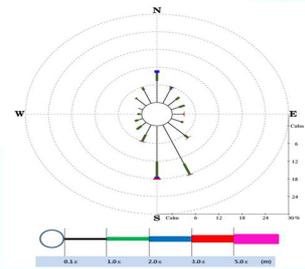
칠발도(서해남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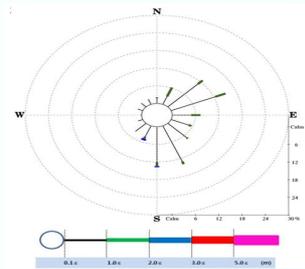
거문도(남해서부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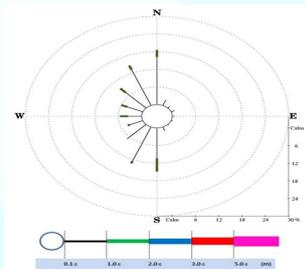
마라도(제주도면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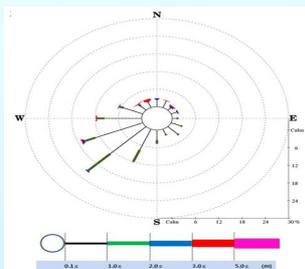
울릉도(동해중부면바다)



동해(동해중부면바다)



포항(동해남부면바다)



거제도(남해동부면바다)

그림 6. 해양기상부이 관측 파향('14년 7월, 파향장미)

## 【참고자료 2】

### ▶ 7월의 주요 해양사고일지

일 시	선 명	피 해	사 고 원 인
'13.7.2 21:37	<b>FU*****호</b> (파나마, 벌크선, 31,643톤, 승선원 26명, 강선, 선령 20년)	선체 좌초	묘박지 투모 작업 중 육지와의 안전거리 미흡 ※ 당시기상 : 남서풍, 8~12m/s, 파고 2~3m
'13.7.6 13:52	<b>103**호</b> (속초 선적, 채낚기 24톤, 승선원 6명, 선령 11년)	선체 파손	비양도 근해 저수심 지대에서 내측으로 진입하 다가 좌주 ※ 당시기상 : 남동풍, 6~8m/s, 파고 0.5~1m



'13. 7. 2. 러\*\*\*호



'13. 7. 6. 103\*\*호